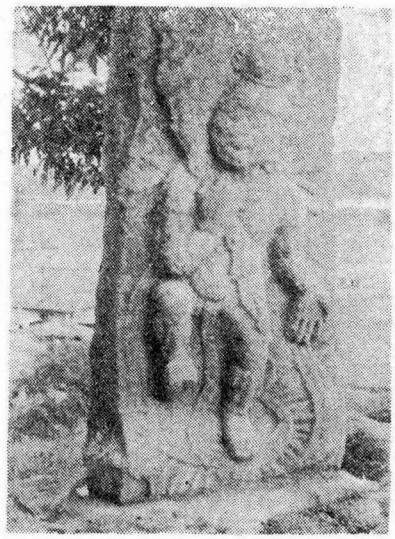
들은 경주 芬皇寺塔以來의 傳統的手法(安東一直面五層塼塔龍室入口左右의 仁王板石등)을 따르고 있어 그에 속하던 遺品으로 推定하고저 한다。특히 (其一)은 保護할만하다(九月二十三日 調査)



註 ① 이 石物은 馬關樹氏夫人이 調査한 바 있어 그의 敎示에 따르는 것인데 이 곳에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② 이 곳에는 羅代이 石燈 佛座石材등이 庭中에 散亂하고 있는 바 모두 收拾되어야 할 것이다。西岳寺의 舊基라고 傳한다。

靑花白磁詩銘甁

孟 仁 在

長頸式甁이며 동치는 鈍重한 球形、頸部는 힘이 빠져 이런 類의 甁이 갖는 典型을 看取하긴 어렵다。釉面도 潤氣가 不足한 不透明靑白色이며 黃褐色釉裂이 듬성듬성하여 一見末期의 粗作인 것도 알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缺點때문에 이 甁의 格調가 형편없이 깎이지는 않는다。

동치 兩面에는 큼직한 柘榴折枝가 한개씩、그리고 이들 가지에는 엽으로 붙은 매미가 한마리씩 그려져 있다。나무의 輪廓은 濃靑、잎과 柘榴는 淡靑 柘榴알은 麟魚처럼 淡靑으로 돌리고 그 안에 辰砂를 點綴했다。이 辰砂의 發色은 鮮明하여 柘榴알은 반짝 빛나고 매미와 더불어 季節의 情趣를 자아낸다。鉤勒塡彩式이라고 할 이 그림은 陶工들의 손을 通해서 되풀이 되는 동안 얻어진 非專門的인 形式이며 그림밑에 쓰인 다음과 같은 行書 五言詩의 筆者는 時代觀照에 敏感한 別個의 人物이었을 것이다。

隨時樹陰問
蟬啼淚難看



靑花빛갈의 濃侈、形狀의 解弛가 製作年代를 스스로 말하지만 이런 類의 甁으로서는 보기드문 詩句를 그와 같은 時期와 結付시켜 吟味해도 不自然하진 않을 것이다。

分院末期의 衰退한 作風에 傳統的 窯業의 終焉을 目前에 그려놓은 것 같은 時代色이 짙은 佳作이다。높이 一〇·五㎝(全忠信氏藏)

堤川 月岳山 德周寺址의 調査

鄭 永 鎬

德周寺의 記錄은 東國輿地勝覽卷之十四 忠州牧佛宇條①에 보이는 바이 古刹은 六·二五 動亂時 全燒된채 아직 重建되지 못하였다。② 忠北 堤川郡 寒水面松界里 月岳山 中腹의 寺址③에는 磨崖石佛 等 數點의 遺